

'세계 1위' 광주 탁구 서수연, '천적' 류징에 설욕 준비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리우·도쿄서 금 획득 실패 항저우 대회 우승 기억 살려 글랜드슬램 달성 목표

PARIS 2024

광주 탁구 서수연(광주 시청)이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천적' 류징(중국)과 격돌한다.

서수연은 4일(이하 한국시간) 사우디 파리아라에서 열린 WS1-2 여자 단식 8강에서 야나 슈페겔(독일)을 세트스코어 3-0(11-1 11-7 11-2)으로 가볍게 누르고 4강에 올랐다.

이날 경기 승리로 동메달을 확보한 서수연의 4강 상대는 류징이다.

서수연은 휠체어 여자탁구 세계랭킹 1위임에도 패럴림픽 무대에서는 단 한번도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

그는 처음 패럴림픽에 도전했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와 2020 도쿄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만난 류징에게 세트스코어 1-3패를 기록했다.

결국 서수연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 2020 도쿄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여자 개인·여자 단체)에 만족해야 했다.

서수연에게 쓴 패배의 맛을 안겨준 류징은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서수연은 지난 2023년 여자 단식 결승에서 라이벌 류징을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우승했던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PG)'를 선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기도 했다.

2014년부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서수연은 항저우 대회 탁구 여자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그는 윤지유(성남시청)와 출전한 이번 파리 대회 여자 복식 결승(WD5)에서도 류징-쉬주안 조에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하며 금메달 앞에서 좌절했다.

패럴림픽 결승에서만 세 차례 가로막았던 서수연이 이번엔 결승행 티켓을 두고 류징과 맞붙는다.

2004년 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서수연은 2006년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탁구에 입문해 2013년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후 2015 아시아선수권대회와 2018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22 항저우 APG에서 한국 탁구 최초 3관왕(여자단식·여자복식·혼성복식)에 오르며 '휠체어 여자 탁구 간판'이라는 명성을 이어왔다.

이번 패럴림픽 경기에서 1위에 오르면 서수연은 글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류징만 만나면 맥을 못 챌던 서수연이 이번 대회에서 설욕에 성공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4일 치러진 파리 패럴림픽 탁구 단식 8강에 출전한 장영진·정영아(이상 서울시청), 차수용(대구시청), 문성혜(성남시청)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 이상 획득을 확정지었다.

지난 3일 열린 WS7 여자 단식 16강에서 김성옥(광주시청)은 사마 알멜라지즈(이집트)를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뒀다. 김성옥은 지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서 한국 여자 스태딩 선수 최초로 단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양궁 김옥금(광주시청)의 뒤를 이어 한국 선수단 두 번째 연장자인 김성옥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개인 은메달과 단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2 스페인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다.

마흔 두살에 탁구를 시작해 왼 살에 메달을 따낸 그는 "이번 패럴림픽을 통해 '노장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서수연

나주 출신 김정남의 '사부곡'...부친상 아픔 묻고 사격 동메달



"아버지 영전에 메달 바칠 것"

나주 출신의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 동메달리스트 김정남(46·BDH파라시)이 대회 준비 기간 부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정남은 3일(이하 현지시간) 사격 경기가 열린 프랑스 파리 샤토루에서 "사실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며 "장례를 지켜보지 못했다. 슬픔으로 힘들었는데, 값진 동메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정남은 2일 프랑스 샤토루 사격센터에서 열린 파리 패럴림픽 사격 P3 혼성 25m 권총 스포츠등급 SH1 종목에 출전했다.

슬픔을 삼키고 사대에 선 김정남은 결선에서 24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김정남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전 캠프에서 훈련 중인) 파리에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라며 "그나마 동생이 있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배동원 선수단장님이 (장례식장이 있는) 나주까지 직원을 파견해 장례 일체를 챙겨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예전에 머리를 다치셨다"며 "수술 후 회복하셨고, 상태가 좋아져서 집에서 생활하셨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면 병원 검진을 받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대회를 마친 김정남은 이제 동메달을 들고 귀국한다. 가장 먼저 아버지 영전에 동메달을 바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공사들, 대학·실업 양궁대회서 활약

광주여대 오예진·광주시청 김수린 금, 순천시청 남수현 은메달

광주·전남 공사들이 '올림픽제페기념제41회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청 김수린은 지난 3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70m와 여자일반부 6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수린은 여자일반부 70m에서 347점을 쏘며 정상을 올랐다. 여자일반부 60m에서는 350점으로 한솔(홍성군청)과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은

이틀에 걸쳐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예진은 3일 여자대학부 70m에서 341점을 쏘며 1위를 기록했고, 4일 진행된 30m에서도 356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양궁 단체전 10연패 업적을 이룬 순천시청 남수현도 여자일반부 30m에서 358점을 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순천대 서보은은 여자대학부 30m에서 최혜미(동서대), 심민주(인천대)와 공동 3위에 자

리했다.

조선대 이원주도 남자대학부 30m에 출전해 김중우·용혁중(이상 한국체대), 장준하(계명대) 등과 공동 3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2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

5일에는 대학·일반부 개인전 64강·4강 경기, 6일에는 대학·일반부 혼성단체전/단체전 경기가 열린다. 7일에는 대학·일반부 개인전 결승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가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 남자배구, 11년만에 세계선수권 출전

여자는 11년만에 출장 불발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무대에 선다. 여자배구는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출전 불발의 고배를 마셨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4일(한국시간)

'2025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국'을 공개했다.

2025 세계선수권의 출전권은 개최국과 지난 대회(2022년) 우승팀, 5개 대륙의 2023 대륙별 선수권 1~3위 팀 15개국을 합쳐 17개국에 먼저 분배했다.

한국 남자배구는 2023 아시아선수권에서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FIVB 남자부 랭킹 28위로 '막자'를 타 내년 9월 12~28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5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얻었다.

한국 여자배구는 2023 아시아선수권에서 6위에 그쳤고, FIVB 랭킹에서도 37위로 밀려 2025년 8월 태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 여자배구가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 못하는 건 2014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11년 만이다.

/연합뉴스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단체전)



'2024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남일부 우승을 차지한 광주시체육회 스쿼시 선수단이 금메달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 제공>

광주시체육회, 전국실업선수권 남일부 우승

전남도청 여일부 준우승

광주시체육회 스쿼시 선수단이 '2024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남일부 우승을 차지했다.

우창욱·고영조·오성학·오민재로 구성된 시체육회 스쿼시팀은 최근 김천 스쿼시경기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한 충북체육회를 결승에서 2-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체육회는 16강에서 세종시에 3-0, 8강에서 경북도체육회에 2-1, 4강에서 경남도체육회에 2-1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전남도청 스쿼시 선수단은 여일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가람·김다정·서효주·양연수로 이뤄진 전남도청 스쿼시팀은 준결승에서 전북도스쿼시연맹에 3-0승을 거둔 후 결승에서 경상도체육회에 1-2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진가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피어오르다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일시 : 2024. 8. 16(금) ~ 9. 15(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